

5·18을 주제로 한 문학신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심사의 기준은 결국 앞선 의문문으로 수렴되었다. 통상적인 신인상의 경우에는 기준에 있어 고민은 크지 않다. 작품의 참신성, 개성, 기본기, 스타일…… 그것이 적용되는 개인적 미감의 충돌이 있을 뿐, 문학이라는 전통과 권위 아래에서 신인상은 최대한으로 자유롭다. 최소한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5·18이라니, 거대하고 숭고한 이름 앞에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게다가 신인의 작품이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5월 광주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지, 1000편이 넘는 시를 읽는 동안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인 점은 문학은 답이 없는 정답이며, 오답으로 채우는 시험지와 같다는 점이다. 신인들에 작품을 향했던 질문을 심사위원 자신에게 자문하며, 중얼거리며, 끄끖 앓으며 한 작품 한 작품 골라내었다. 그리고 떠올렸다. 1980년의 광주를. 그로부터 근 4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을.

시는 가장 내밀하게 창작되고 또한 내밀한 방식으로 읽혀진다. 내밀함은 기억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기억은 망각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기억은 굴절되고 부서져 파편만 남을 수도 있다. 5·18은 우리에게 망각할 수 없는 기억일 것이되, 참혹하게 부서져 복원시켜야 할 파편들이다. 그렇게 살아남은 그날의 기억은 다시 오늘을 호명한다. 내밀한 기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것이 문학의 현재성이다. 오월 광주의 영원성이다.

응모작들의 수준이 일정하고, 시인만의 개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5·18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함께 아우르는 「춤」을 당선작으로 선택했다. 축하의 말씀을 건넨다. 좋은 시를 읽게 해주었다. 감사의 말씀도 함께 건네야 옳을 것이다. 「춤」은 기억에 대한 시이다. 어떤 날의 기억은 그날 신었던 슬리퍼의 색깔과 모양까지 기억하게 한다. 1980년 봄날의 우리가 그렇지 않겠는가. 반대로 1987년 여름날 빌딩의 옥상에서 대규모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의 기억은 이미 망각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그저 그렇게 다 잊은 채로 살고 있지 않은가. 「춤」의 시어들은 기억함과 잊어버림의 팽팽한 줄타기이다. 파편을 그러모으는 편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돌올한 시의 개성으로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게 한다. 차라리 문득 떠오르는 기억의 가락에 따라 변명의 춤을 추게 하는 악보다.

「삼월의 기상」 등의 작품도 심사위원 손에 오래 머물렀으니 특유의 투박한 면모가 리듬감을 다소 해치는 면이 있었다. 다음의 기회에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그 외에도 응모된 거의 모든 시편들이 기억과 싸우고 있었다. 제대로 기억하는 일이 문학의 본질일 것이다. 본질에 다가서려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 그날의 도청 앞 분수대도 그랬을 것이다. 당선된 신인에게는 축하를, 응모한 예비 시인들에게는 위로를. 그럼에도 우리는 어깨를 걸치고 분수대 곁에 둘러앉은 동지가 아니겠는가.